

조선시대 질병 인식과 상상력

- 비(非)전염병 귀신담을 중심으로 *

김유미**

〈차 례〉

1. 조선시대의 질병과 귀신 서사
2. 질병 귀신담의 종류
 - 1) 정신이상 행위
 - 2) 기타 질병
3. 질병 귀신담의 특징
 - 1) 인간의 투지, 의술, 능력의 강조
 - 2) 사회적 연대와 위계의 작동
 - 3) 협상과 유머의 대상으로서 귀신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필기와 야담류에 나타난 비(非)전염성 질병 귀신담 중 귀신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야기에 주목하여, 당대 사회가 비-전염병을 상상하고 서사화한 방식을 살핀다. 병의 원인으로서의 귀신은 모든 질병 서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설명 방식이 아니라, 조선시대 의학 환경에서 원인 규명이 어려웠던 정신 이상 및 기타 질병 서사에 선택적으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비-전염병 귀신담에는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의 투지·의술·능력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전염 위험이 낮아 인간의 직접적 개입과 치료 시도가 가능했던 비-전염병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의 원인인 귀신 역시 절대적 숭배나 공포의 대상이라기보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4730).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부교수

다 인간이 힘으로 제압하거나 인간 주도의 협상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질병 귀신을 이기는 인물은 대체로 귀신을 인지하는 능력과 육체적·정신적으로 뛰어난 힘을 갖춘 존재로 설정되며,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비-전염병 귀신담에서는 환자와 주변인의 활발한 교류, 인간 주도의 타협, 이성과 저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교적 사회위계와, 귀신을 회화화하는 시선도 나타났다. 이 역시 질병이 환자 개인에게 국한된다는 조건에서 비롯된 서사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전염성은 단순한 의학적 속성이 아니라, 조선시대 질병 귀신담의 서사 구조를 조직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기능한 것을 알 수 있다.

□ 비전염성 질병, 귀신, 전염병, 전근대 한국문학

1. 조선시대의 질병과 귀신 서사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포함된 질병 소재의 귀신담¹⁾을 통해 비(非)전염성 질병²⁾에 대한 조선시대의 상상력과 서사화 방식을 살펴본다. 질병은 사람이 원하지 않지만, 사람의 신체를 장악하는 타율적인 것으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2020년 COVID-19의 경험은 국가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팬데믹 전염병이 가지는 속성을 드

-
- 1) 귀신담을 연구한 강상순의 지적처럼 귀신(鬼神)이란 넓은 용례를 가진 다의적인 용어이다.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에는 귀신, 귀매, 독가비 등의 용어가 나온다. 본고는 강상순의 용례를 따라, 초자연적 비(非)인간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귀신’을 사용하며, 별례의 령(靈)이나 뚜렷한 형태가 없는 사악한 기운까지 범주에 포함한다. 강상순,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139쪽.
 - 2) 이후 비-전염병으로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 ‘비-전염병’은 사람 간 전염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질병이다. 작품에서 ‘역(疫)’ 또는 ‘염(染)’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전염성이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으로 나타난 작품은 제외한다. 말라리아(학질)은 감염병이지만, 모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고, 사람 간에 직접 전염되지 않는다.

러내 주었다. 감염이 의심되는 공간의 봉쇄, 환자의 고립과 그들에 대한 기피나 비난 등은 전염이라는 조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전근대 한국의 의학 환경에서 전염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지만, 발병 양상을 지켜보며 질병의 전염성 여부는 경험적으로 파악되었다.³⁾ 이는 전염 위험이 없는 질병이 전염병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경험되었으며, 그 차이가 서사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질병 중에서도 비-전염성 질병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학의 소재로서 질병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역병(疫病)이나 염병(染病)으로 지칭되는 전염병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⁴⁾ 이주영은 역병 체험 기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려움과 긴장에 주목하고, 이러한 감정을 불확실하며 불안한 현실에 맞선 당대인의 문학적 대응으로 보았다.⁵⁾ 강상순은 조선시대 역병의 다양한 병인(病因)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신이적 병인론에 주목하여 역병 귀신담을 무지(無知)와 공포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여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그리고 역병 귀신이란, 보이지 않는 병의 원인을 가시적 존재로 구체화하여 질병을 사람의 인식 안에 포섭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⁶⁾ 전염병 중 천연두에 집중한 정장순의 연구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무속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유교적 변형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천연두 야담을 분석했다.⁷⁾

3)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3쪽.

4) ‘염병’은 특정 질병명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지만, 역사서·의학서·야담류에서는 감염력이 강한 질환에 ‘역(疫)’이나 ‘염(染)’ 자를 사용한다.

5) 이주영, 「19세기 疫病 체험의 문학적 형상」,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39~68쪽.

6) 강상순, 「조선시대 역병인식과 신이적 상상세계」, 『일본학연구』 4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69~97쪽.

7) 정장순, 「조선후기 야담에 형상화된 ‘두신(痘神)’의 성격과 의미」, 『어문논집』 76, 민족어문학회, 2016, 5~39쪽. 이 밖에도 정경민의 연구는 『천예록(天倪錄)』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나온 두역신의 의미를 분석했다. 정경민, 「귀신으로서의 아이가 지

한편 비-전염병 서사는 전염병 서사와 하나의 범주로 묶어 연구된 경향이 있었다. 치병설화(治病說話)를 다룬 이인경의 연구⁸⁾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난 눈병, 종기, 천연두 등 다양한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의 모습에 주목한다. 질병과 치유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이란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사적인 체험임을 밝힌다. 김신정⁹⁾은 전염병, 비-전염병, 그리고 피병의 서사를 통해, 이러한 질병이 다른 세계로 이동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소재이자, 화를 모면하게 만드는 구실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가 전염병 서사에 주로 집중된 이유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파급력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전염병은 그 서사 역시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유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비-전염성이라는 의학적 속성은 특정한 행동 방식과 정서 반응을 만들어낸다. 전염병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내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본능적 반응으로 환자를 피하게 된다. 이는 서사에도 반영되어, 전염병 관련 야담 다수에는 질병의 전염성이 동시적·집단적 발병 양상으로 제시되고 주변인은 이에 따른 위협을 빠르게 감지한다. 일례로 『어우야담』에서는 권람(權擘)이 병에 걸린 친구를 방문하려 한다. 그러자 주변인들이 그 집의 가족들이 모두 병에 걸렸으니 이는 전염병이고, 권람이 병문안을 갔다 오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을 것이라 경고하며 만류한다.¹⁰⁾ 이와 달리,

닌 표상성 연구-『천예록』 소재 두역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39~63쪽.

8) 이인경,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の 시선」, 『어문론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43~180쪽.

9) 김신정, 「조선조 야담을 통해 본 질병의 형상화와 질병에 대한 두 시선」, 『구비문학연구』 58,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200~201쪽.

10) 유몽인, 신익철·이형대·조용혁 역, 『어우야담』, 〈권람의 의로운 행동〉, 돌베개, 2006,

전염성이 낮거나 없는 질병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환자 곁에 머물며 간호하거나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평소 왕래가 뜸하거나 어색했던 관계의 사람들 또한 병을 계기로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비-전염병 서사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의사의 왕진과 더불어 환자의 친척, 동료, 친구가 병문안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서술되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전염성 여부라는 질병의 속성이 질병 서사의 형성과 전개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당대의 질병 상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귀신담에 주목하고, 그중에서도 귀신이 질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된 사례에 집중한다.¹¹⁾ 연구자료는 조선시대 필기 및 야담류에서 조선 초기 자료집으로 『용재총화(慵齋叢話)』, 『대동야승(大東野乘)』 중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중기 자료로 『어우야담(於于野譚)』, 후기 자료로 『천예록(天倪錄)』, 『동괘낙송(東稗洛誦)』, 『매옹한록(梅翁閑錄)』, 『잡기고담(雜記古談)』, 『학산한언(鶴山閑言)』, 『청구야담(靑邱野談)』, 『동야휘집(東野彙輯)』을 포함한다.

이번 연구가 참고한 총 12건의 자료를 시기별로 나누어 <표 1>에 제시하고¹²⁾ 비교를 위해 전염병 귀신담을 <표 2>에 제시한다.¹³⁾

250쪽.

- 11) 귀신이 질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저승사자로 파악되거나(『동괘낙송』 중 <병든 친구를 구해준 이항복> 등), 귀신이 간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한 사례(『용재총화』 중 <기근과 이두의 집에 붙은 귀신들> 등)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 12) 위 연구에서 조사한 필기 및 야담 기록은 시대별로 기록의 수나 작품집의 분량이 동일하지 않기에, 절대적 숫자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검토하지 못한 자료에서도 질병 귀신 작품이 있을 수 있기에, 초기-중기-후기 작품의 편수 대비는 절대적 숫자이기보다는, 검토한 대표 자료 안에서 유의미함을 밝혀둔다.
- 13) 본고에서 제시한 전염병 귀신담이 조선 시대 전염병 서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전염병 서사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참고로 활용한다.

〈표 1〉 비-전염병의 원인으로 귀신담¹⁴⁾

시기	제목	질병	출처
초기	〈송원의 어떤 선비〉	정신이상	용천담적기
	〈채빙군 양정공〉	기타	용천담적기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	기타(충치)	용재총화
	〈귀신을 본 안씨 가문 사람들〉	정신이상	용재총화
중기	〈술사 황철〉	기타	어우야담
	〈기녀 귀신의 빌미〉	기타	어우야담
	〈선조매의 명의 안덕수〉	기타	어우야담
	〈한명회와 전림의 잔혹한 성품〉	기타	어우야담
	〈학질을 물리친 유몽인의 시〉	기타(학질)	어우야담
후기	〈산의 정령을 내쫓은 이유〉	기타	학산한언
	〈노비 40명의 목숨으로 생질의 외딸을 살린 윤승훈〉	기타	매옹한록
	〈신돈복 덕분에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은 친구〉	기타	학산한언

〈표 2〉 전염병의 원인으로 귀신담¹⁵⁾

시기	제목	출처
후기	〈찬을 내오게 하여 먹고 어린아이를 살리다〉	천예록
	〈제문을 지어 하늘에 고하여 마을을 구하다〉	천예록
	〈두창신〉	천예록
	〈잔치에서 사나운 아이가 염병을 퍼트리다〉	천예록
	〈선비의 집에 늙은 할미가 요괴로 변하다〉	천예록
	〈유상이 이야기를 엿듣고 임금께 쌀뜨물을 바치다〉	청구야담
	〈천연두 앓는 아이가 관아를 떠들썩하게 대청에 오르다〉	청구야담
	〈두창 신령에게 준마 제공하여 두창 걸린 아이 살리다〉	동야취집

14) 표 안의 제목은 번역본을 따르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처럼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앞부분을 따서 〈송원(松原)의 어떤 선비〉, 〈채빙군 양정공〉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복수의 야담집에서 동일한 자료가 겹치는 경우, 연구자가 파악한 선행 자료를 출처로 기재한다.

15) 〈표 1〉과 유사하게 귀신이 질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저승사자로 파악되거나(『어우야담』 중 〈권담의 의로운 행동〉),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거나(『어우야담』 중 〈중랑의 시신을 묻어 준 무사〉 등), 발병(發病)과 치병(治病)이 서사의 중심이 아닌 이야기(『천예록(天倪錄)』 중 〈한준겸의 시골 친척이 만 명의 귀신을 점검하다〉 등)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전염병 귀신담은 조선 전기·중기·후기를 걸쳐 등장하며, 다양한 기록에 분포하고, 작품의 수 역시 전염병 귀신담보다 적지 않다. 이와 달리 전염병 귀신담은 조선 전기와 중기보다는 후기에 주로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비-전염병 귀신담은 조선시대의 질병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귀신담 연구의 일부로 들어가 산발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었다.

질병을 귀신화(化)하여 인간의 인식 체계 속에 포섭하고, 이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완화한다는 원리¹⁶⁾는 모든 귀신담이 공유하더라도, 전염병 귀신담과 비-전염병 귀신담은 각기 다른 지점에서 상상력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 지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아직 부족하여, 수적으로는 다수인 비-전염병 서사가 전염병 서사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질병 서사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유형의 질병 서사를 분리하여 고유한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비-전염병 서사 중 귀신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하며, 발병(發病)과 치병(治病)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작품을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특징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비-전염병 중 귀신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여겨진 질병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질병 귀신담의 특징을 1) 인간의 투지, 의술, 능력의 강조, 2) 사회적 연대와 위계 작동, 3) 협상과 유머의 대상으로서의 귀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질병 귀신담의 종류

조선시대의 사람은 어떤 비-전염병 질병을 귀신의 탓이라고 여겼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질병 귀신담에는 환자의 병명(病名)이

16) 강상순(2015), 앞의 논문, 94~95쪽.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적고, ‘드러누웠다,’ ‘여위었다’ 처럼 증상만 단편적으로 서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편적 묘사만으로 정확한 병명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그 외의 질환 정도로는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정신이상 행위

귀신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사례에는 환시, 환청, 헛소리나 이상 행위를 하는 ‘미친병’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용재총화』, 「용천담적기」에 각 1편씩, 총 2편이 있으며 병의 원인과 치유 여부는 <표 3>과 같다.

<표 3> 정신 이상 행위

	출처	원인	치유 여부
1	용재총화	고목의 신	O
2	용천담적기	벌레의 영혼	X

1과 2는 빙의(憑依)로 흔히 일컬어지는, 일종의 정신 질환 사례이다.¹⁷⁾ 『용재총화』에서 한 소년은 고목을 자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밤낮으로 날뛰며 행패를 부리는데,¹⁸⁾ 이야기는 고목에 붙어 있었던 귀신을 이상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유사하게 「용천담적기」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자, 아내가 갑자기 미쳐서 ‘귀신같은 말로’ 남편을 욕하며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우리 집을 빼앗고 죽속을 살육했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아내의 병이 집터를

17)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빙의를 해리성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의 증상으로 이해한다. 정현진, 「빙의장애로 진단된 입원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쪽.

18) 성현, 김남이·전지원 외 역, 『용재총화』, <귀신을 본 안씨 가문 사람들>, 휴머니스트, 2015, 173~176쪽.

다지는 과정에서 벌레를 죽였기 때문임을 깨닫는다.¹⁹⁾ 동식물에도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 자신을 해친 인간에게 분노를 품어 정신과 육체의 병을 일으킨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사례이다. 또한 『잡기고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병으로 제 정신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구는 여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고 굿을 하기 위해 무당을 부른다.²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인간 세상이 아닌 동식물의 세계, 현세가 아니라 사후 세계,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 속한 비-인간 대상에서 찾기 때문에, 치료법은 환자 개인이나 환자가 속한 사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이상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귀신은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환자의 병은 치유가 힘들거나 실패하기도 한다. 남편은 벌레의 귀신이 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아내의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부부가 모두 병에 걸려 사망한다. 정신이상을 귀신의 소행으로 설정하는 서사적 방식은, 당대 의학이 정신 이상의 원인을 사악한 기운으로 설명했던 인식²¹⁾과 더불어 정신이상의 진단과 치료가 현대보다 더욱 어려웠던 의학적 환경²²⁾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대동야승(大東野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22A_0010_000_0020, 접속일자: 2025.11.01.

20) 임매, 김동욱 옮김, 『잡기고담』, 〈무녀 의원〉, 보고서, 2014, 11~12쪽. 집안 사람들은 이 병을 귀신의 소행으로 보았지만, 이후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1) 전근대 시기라고 하여, 정신 질환의 원인을 사악한 기운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정신 질환의 종류에 따라 약을 쓰기도 하고, 사악한 기운의 접근을 막는 부적이나 주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허준,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동의보감』 4, 법인문화사, 1356~1360쪽.

22)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귀신병의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다고 기술했다.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8A, 접속일자: 2025.11.01.

〈표 4〉 기타 병

출처	편수	내용	치유 여부
용천담적기	1	피를 토하는 급병	X
용재총화	1	충치의 원인인 벌레 제거	O
어우야담	5	다리병의 원인인 벌레 제거	X
		술사 황철이 괴질 귀신을 쫓아냄	O
		학질의 귀신을 쫓아내는 시	O
		귀신으로 인한 고질병	X
		감사를 병들게 만드는 기녀 귀신	O
계압만록	1	감사를 병들게 하는 귀매	O
학산한언	2	괴질을 일으키는 귀신	O
		괴질을 일으키는 요물	O

2) 기타 질병

이상 행위 이외에도 귀신에게서 병인(病因)을 찾는 이야기는 다수 발견된다. 이는 조선시대 이전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승상 김양도는 귀신 때문에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을 앓는다.²³⁾ 구체적인 병으로는 중기도 있다. 『삼국유사』에서 신문왕(神文王)의 등에 난 중기는,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의 원한이 원인으로 밝혀진다.²⁴⁾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서도 비-전염병의 원인으로 귀신을 지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아래의 〈표 4〉에는 총 10편의 질병 귀신담의 출처, 편수, 간략한 내용과 치유 여부를 표시했다.

23) 일연, 『삼국유사』 권5, 제6신주(神呪第六), 「밀본취사(密本摧邪)」, 한국고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y_005r_0010_0010_0010, 접속일자: 2025.11.01.

24) 일연, 『삼국유사』 권5, 제6신주(神呪第六), 「혜통항룡(惠通降龍)」, 한국고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y_005r_0010_0020_0050, 접속일자: 2025.11.01.

『용천담적기』에서 채빙군 양정공의 동생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데, 저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병을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며, 사악한 기운이 사람을 해친 것으로 판단한다. 『어우야담』에서 유몽인은 학질의 원인을 수신(水神)으로 여기고, 흙(土)이 물을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땅귀신인 토백(土伯)에 관한 시를 써서 환자의 등에 붙인다.²⁵⁾ 또한 기녀 귀신이 전라도 도사와 교접하며 그의 기력을 빼앗아 몸을 마르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다.²⁶⁾ 새로 부임한 감사가 병들거나 병들어 죽은 일이 잦은 지방에는, 질병의 원인을 귀매(鬼魅)로 설명한다.²⁷⁾ 귀매는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선비, 군인, 감사의 어머니 등으로 변신하며 그들을 혼란시키거나 위협한다. 『학산한언』의 작자인 신돈복 관련 일화도 유사하다. 시골에 사는 신돈복의 친구는 몸살감기 증세와 함께 귀신의 그의 가슴 부근을 타고 앉아 여러 행패를 부린다.²⁸⁾ 그리고 눈이 빛나고 외발로 뛰어다니는 요물이 양반집 부인에게 붙어 괴질을 일으키기도 한다.²⁹⁾ 유사한 질병 귀신담은 조선시대 기타 기록에서도 종종 발견된다.³⁰⁾

환자 자신뿐 아니라 의원에게 귀신이 나타나는 예도 있다. 의원 안덕수는 고질병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던 중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과 환자가 원수이며, 상제께 고하여 그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25) 유몽인(2006), 앞의 책, 308~309쪽.

26) 유몽인(2006), 위의 책, 273~274쪽.

27) 『계압만록(鷄鴨漫錄)』,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5,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387쪽에서 재인용.

28) 신돈복, 김동욱 옮김, 『국역 학산한언』 2, 〈신돈복 덕분에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은 친구〉, 보고서, 2007, 122~124쪽.

29) 신돈복(2007), 위의 책, 〈산의 정령을 내쫓은 이유〉, 119~121쪽.

30)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 이익(李瀾)은 굶어서 죽은 아이의 귀신이 부유한 집의 사람들에게 두통과 복통을 일으킨다고 기록했다. 이익, 『성호사설(星湖僊說)』, 『만물문(萬物門)』,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8A. 접속일자: 2025.11.01.

밝힌다. 그리고 의원이 환자 치료를 계속한다면, 환자 대신 의원을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다. 꿈에서 깬 안덕수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는 사망한다.³¹⁾ 『어우야담』에 수록된 이 이야기는 고질병의 원인을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으로 제시한다. 또한 질병 귀신은 벌레와 같은 미물(微物)로도 그려진다. 『어우야담』에서 정강이가 아픈 병의 원인은 벌레이며,³²⁾ 『용재총화』에서 의원을 사칭하는 여성은 충치의 원인인 치아 속의 벌레를 잡아낸다.³³⁾ 유몽인은 벌레를 잡는 기술이 과연 정당한 의술인지는 의심했지만, 병의 원인이 벌레라는 관념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다.

정신이상 행위와 더불어, 조선시대 비-전염병 귀신담에서 병명이 명확히 제시된 예는 학질과 충치 관련 총 2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대신 고질병(痼疾病), 괴질(怪疾), 급병(急病) 등으로 기술되는데, 이는 병명이 아니라 병의 지속성·위험성·발병 속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병은 대체로 발병 원인이 모호하고 치료 성과가 낮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비-전염병 중에서 당대의 의료 지식으로는 원인 규명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선택적으로 귀신을 동원했음을 드러낸다. 즉, 의학 적 불확실성은 귀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를 상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3. 질병 귀신담의 특징

1) 인간의 투지, 의술, 능력의 강조

비-전염병 귀신담에 등장하는 인간은 귀신과 맞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31) 유몽인(2006), 앞의 책, 488~489쪽.

32) 유몽인(2006), 위의 책, 648쪽. 이 벌레는 영혼의 존재는 아닐 수 있지만, 인간의 다리에 서식하고, 끌어도 죽지 않는다는 묘사를 통해 작은 괴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3) 성현(2015), 앞의 책, 507쪽.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담대하게 귀신과 대적하여 축귀에 성공하는 서사도 적지 않다. 비-전염병 귀신담에는 치료에 성공하는 이야기와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혼재하여, 앞서 <표 1>의 12건 가운데 치유 성공 사례가 8건, 실패 사례가 4건으로 나타난다. 환자 치료에 실패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은, 비-전염병의 위험성이 당대에 결코 낮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 속 인간은 질병에 맞서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어우야담』에서 한명회는 다리에 심한 병을 앓다가 죽는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병과 맞서 싸워 원인으로 추정되는 큼직한 벌레를 잡아낸다.

한명회는 종으로 하여금 큰 돌로 정강이를 부러트리도록 했다. 종이 감히 하지 못하자, 한명회가 크게 노하여 활을 당겨 쏘려고 하니, 종이 할 수 없이 큰 돌을 들어 쳐서 뼈를 부러트렸다. 뼈가 빠개져 골수가 흐르는데, 한명회가 손으로 뼈속을 더듬어 엄지손가락만 한 큰 벌레 한 마리를 찾아냈다. 곧 솥에 기름을 붓고 팔팔 끓였는데도 벌레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 기름이 다 탄 연후에야 벌레가 비로소 죽었으며, 한명회 또한 죽었다.³⁴⁾

이 작품에서 질병을 벌레와 같은 미물로 형상화하는 것은 『삼국유사』에서 질병 귀신을 교룡(蛟龍)과 같은 거대괴물로 형상화한³⁵⁾ 사례와는 대비되는, 해당 질병을 인간이 상대 가능한 규모로 재구성한 서사 전략이다. 한편 끓는 기름 솥에 넣어도 버티다가 기름이 다 타고 나서야 죽었다는

34) 유몽인(2006), 앞의 책, 648쪽.

35) 이 작품에서 질병을 벌레와 같은 미물로 형상화하는 것은 『삼국유사』에서 질병 귀신을 교룡(蛟龍)과 같은 거대 괴물로 형상화한 사례와는 대비되는, 해당 질병을 인간이 상대 가능한 규모로 재구성한 서사 전략이다. 일연, 『삼국유사』 권5, 제6신주(神呪第六), 「혜통항룡(惠通降龍)」, 앞의 인용.

벌레의 끈질긴 모습은 잘 낫지 않는 질병에 대한 인간의 혐오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픈 다리의 뼈를 부수고 벌레를 손으로 집어내는 대담무쌍한 한명희의 행위는 자기가 죽더라도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말겠다는 인간의 투지를 부각한다.

『어우야담』에서 의원 안덕수가 치료를 포기한 환자는 사망한다. 그러나 유몽인은 “사악한 기운이 사람에게 화를 끼칠 수 있지만...사람이 능히 좋은 약으로 잘 막아 내면 사악한 기운이 그 틈을 탈 수 없는 것이다”³⁶⁾라고 평하며, 의원의 치료 포기를 비판한다. 『잡기고담』에서 무당은 미친병이 든 환자에게, 이 환자의 병은 축귀(逐鬼) 대신 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³⁷⁾ 귀신이 일으키는 병과 약으로 고치는 병을 구별하는 이성적 판단도 보여준다. 이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환자나 주변인은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하기보다는, 이 병은 귀신 때문에 발병한 병임을 알고, 귀신을 제압할 방법이나 귀신이 두려워하는 ‘특정한 인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를 실제 치료법으로 실행하여 효험을 보는 사례도 등장한다. 이는 전염병 관련 귀신담에서 인간의 개입이 비교적 제한적인 점과 대비된다.³⁸⁾ 비-전염병 서사에서는 치유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도 인간의 적극적 개입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는데,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신뢰와 질병 통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반영한 것이다.

인간의 개입으로 병이 치유될 때에도, 비-전염병 귀신담에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인간이 종종 등장한다. 이때 귀신을 제압하는 인간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지가 뛰어난 인물이다. 귀신 볼 줄을 알면서 동시에 엄격하고 강건한 성격의 안종약(安從約)

36) 유몽인(2006), 앞의 책, 488~489쪽.

37) 임매(2014), 앞의 책, 11~12쪽.

38) 천연두 관련 귀신담에도 인간의 역할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최상의 대응조차 귀신에게 음식이나 제문을 바치고 간곡히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 나무 귀신이 들어 미쳐버린 소년을 구한다.³⁹⁾ 안종약이 미친 소년을 끌어내어 꾸짖고, 나무로 소년의 목을 베는 시늬를 하자 귀신이 달아났고 소년의 미치광이 증세도 사라진다. 그리고 술사(術士) 황철은 귀신을 식별하고 쫓아내는 전문가이다.⁴⁰⁾ 학질을 앓던 여성이 황철을 부르자, 그녀의 꿈에 나타난 한 여인이 목숨을 살려달라 애걸하고, 푸른 옷을 입은 장부가 그 여인을 사로잡는다. 목숨을 살려달라 구걸하는 여성은 질병 귀신이며, 푸른 옷을 입은 장부는 황철이다. 이야기에서 황철은 귀신을 잡아다가 상자에 넣고 돌로 묶어 강에 갖다버리는 등, 남다른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또한 기이한 변신술로 새로 부임한 감사마다 병들게 했던 귀신은, 새로 부임한 민정중이 귀신의 변신과 유혹, 협박에 흔들리지 않자 사라져 버린다. 민정중 역시 귀신을 식별하는 능력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귀신을 보는 능력과 강건한 기질이 결합한 인간상이, 귀신을 물리치는 인간의 조건으로 제시된다.

조선 후기에는 앞서 요구되던 능력의 일부만으로도 질병 귀신을 물리치는 인물이 등장한다. 『학산한언』에서 부인에게 붙어 병을 일으키는 귀신은 이유(李濡)에게 퇴치당하는데, 그의 사람됨이라야 인후(仁厚)하다는 인격적 자질뿐이며, 귀신을 쫓기 위해 한 일도 그저 귀신을 똑바로 본 것이 전부이다.⁴¹⁾ 나아가 초월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귀신을 퇴치하는 경우도 있다. 『학산한언』에서 귀신의 행패로 고통받던 신돈복의 친구는, 귀신이

39) 성현(2015), 앞의 책, 173~176쪽.

40) 유몽인(2006), 앞의 책, 186~187쪽.

41) 신돈복(2007), 앞의 책, <산의 정령을 내쫓은 이유>, 119~121쪽. 강상순(2015)은 이 이야기를 역병의 사례로 연구했으나, 환자 주변 사람이 전염을 두려워하거나, 전염되었다는 암시는 없다. 원문에는 ‘괴질(怪疾)’로 나와 있는데, 전염성이 없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괴질(怪疾)로 쓴 사례도 발견되므로, 이번 연구는 해당 이야기를 비-전염병 귀신담 사례로 제시한다.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친구 이름을 하나씩 불러본다. 신돈복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귀신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자, 친구가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귀신은 달아나고 그의 병도 나았다. 신돈복은 졸렬(拙劣)하여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귀신이 두려워했음을 신기하게 여긴다.⁴²⁾ 신돈복이 자신을 졸렬하다고 지칭한 것은 겸사(謙辭)로 볼 수 있으나, 앞선 작품에서처럼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귀신 퇴치자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 전기 퇴치자에게 요구되던 ‘귀신을 식별하는 눈’과 ‘강건한 육체적 능력’의 결합이, 조선 후기에는 필수 조건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비-전염병 귀신은 대체로 인간의 의술이나 능력, 혹은 인품으로 관리될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발병 원인을 모르는 질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귀신이라는 외부 존재에 지속적으로 투사되었지만, 비-전염병 귀신담에서 인간의 개입이 전면화된 점은, 전염 위험이 낮아 인간의 직접적 개입과 치료 시도가 가능했던 질병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⁴³⁾

2) 사회적 연대와 위계의 작동

질병은 환자 본인에게 고통이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두려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질병의 전염성 유무와 강도는 주변 사람들의 대응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근대 사회에서 전염병은 짧은 시간에 급속히 퍼지고 사망률도 높았다. 1821년 콜레라 유행 당시 평안감사가 올린 보고에는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 자그마치 1천여 명이나 되었으며, 의약도 소용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다”⁴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2) 신돈복(2007), 위의 책, 122~124쪽.

43) 이와 달리 전염병 귀신담에서는 귀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강렬한 투지나 직접적인 귀신 제압 장면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전염병의 무차별적인 감염성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환자를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비-전염병의 경우, 주변인에게 환자의 돌봄은 치명적 위협이 아니며 윤리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환자는 대체로 고립되지 않는다. <선조때의 명의 안덕수>나 <술사 황철>의 사례처럼 환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전문가를 추천받기도 한다. 주변 사람 또한 병문안을 와서 연민을 표시하고 도와줄 방법을 고민한다. <귀신을 본 안씨 가문 사람들>에서 안종약은 마을의 소년이 귀신이 붙어 밤낮으로 미쳐 날뛰는 것을 알게 되자 “은 동네 사람이 그(소년)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공이 그 집에 가서 문밖의 평상에 걸터앉아 사람을 시켜 소년의 머리털을 낚아채 끌어 내니 소년은 사색이 되어 애걸했다”⁴⁵⁾처럼 직접 소년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몸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낸다. 건강했을 때는 무관심했던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보거나, 소원(疏遠)했던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는 등 기존의 인간관계가 강화되거나 확장되기도 한다. <기녀 귀신의 빌미>에서 전라도 감사, <신돈복 덕분에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은 친구>에서 시골 사람, <사악한 귀신을 물리쳐 부인을 살리다>에서 부인은 각각 지인과 친구, 친척의 도움으로 귀신 쫓기에 성공한다. 이처럼 환자 주변인이 병의 원인을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서사 구조는 질병이 즉각적인 전염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일정 부분 관련된다.⁴⁶⁾

비-전염병 귀신담에서 귀신과 협상하거나 퇴치하는 인물군은 종종 환

4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21년 8월 13일, https://sillok.history.go.kr/id/kwa_12108013_001, 접속일자: 2025.12.02. “頃刻殞斃, 旬日之內, 多至千餘. 而醫藥所不及, 救止無其術”.

45) 성현(2015), 앞의 책, 174쪽.

46) 이러한 서사 구조는 비-전염병 서사 일반의 특징이기도 하다. 김유미, 「비(非)전염성 질병의 문학적 형상화: 전근대 가문소설에 나타난 종기와 화병을 중심으로」, 『문학과학회』 23(4), 문학과학학회, 2024, 5~32쪽.

자의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환자의 인적 관계망 내에서 등장하며, 치료의 성패 역시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부를 수 있는가’에 좌우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전염병 귀신담에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자와 주변인의 접촉이 제한되거나 단절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인간 사이의 상호 교류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서술은, 비-전염병이 ‘타인의 질병’으로서 환자와 방문자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유교적 위계질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 『매옹한록』에서 병든 양반집 딸 한 명의 목숨은 종 40명의 목숨과 맞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등가 교환’에는 저승이 이승과 동일한 유교적 위계질서가 적용되는 세계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 이야기에서 귀신 퇴치자는 영의정을 지낸 노년의 양반 남성으로 설정되어, 젊은 선비 귀신을 위엄으로 압도한다. 이렇게 질병 귀신을 이기는 자는 대체로 남성, 유학자, 관료와 같은 지배층이며, 귀신의 피해자는 부인이나 어린이 등 주변화된 인물이 많다.⁴⁷⁾ 이는 유교적 위계 질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자가 귀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응하는 능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 협상과 유머의 대상으로서 귀신

비-전염병 귀신담에서 귀신은 대체로 인간 주도의 소통이나 협상이 가능한 대상으로 그려진다. 『매옹한록』에서는 이방영의 외동딸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자, 어머니가 꿈에서 딸 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비와 윤승훈 정승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된다.⁴⁸⁾ 정승은 선비 귀신에게 이 아이

47) 조선시대 필기·야담류 속 귀신담에서 귀신을 제압하는 인물은 대체로 사대부 남성인 경우가 많은 것은, 필기·야담류 자체가 사대부 계층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장르라는 점과 연결된다. 한편, 질병의 피해자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퇴치자가 상대적으로 드문 전염병 귀신담에는 퇴치자의 사회적 위계보다는 질병의 확산 양상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의 목숨을 살려주면 자신의 집 중 40명을 대신 주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선비는 이를 받아들인다. 협상이 성립되자 여아의 병은 회복되고, 정승의 중 40명은 죽는다. 이야기에서 선비 귀신은 정승과 차분히 마주 앉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협상하는 존재이다. 이 작품을 포함하여 비-전염병 귀신담 속 귀신은 대체로 인간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고 특정 인간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는 전염병 귀신담 중에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귀신이 적고,⁴⁹⁾ 인간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귀신도 천연두 관련 사례로 제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 비-전염병 귀신담에는 귀신을 유머나 조롱의 대상으로 그려내는 여유가 보이기도 한다. 『어우야담』에서 귀신 기녀에게 흘려 병든 전라도 감사는 큰 곳을 벌인다.

전주 관원에게 일러 경내의 무녀들을 모으고 각기 기약을 갖추어 밤새 제를 지내도록 했다..귀신 기생은 김에게 말하였다. “저도 가서 보고 싶는데,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가실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김이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니, 네가 나를 버릴까 두려울 뿐이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 귀신 기생은 그 말을 얼마간 믿고 가서 구경했는데, 몸의 반쯤은 여전히 병풍 사이에 드러내 놓고 빈번히 돌아보다가 이내 구경을 그만두고 다시 왔다. 그러다가 풍악 소리가 높아지자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가서 구경했으며, 이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다음 날 밤에도

48) 이 작품에서 선비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비가 병을 낫게 하여 환자를 살린다는 점에서, 병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박양한, 김동욱 옮김, 『매옹한록』, 〈노비 40명의 목숨으로 생질의 외팔을 살린 윤승훈〉, 보고서, 2017, 191~193쪽.

49) 〈잔치에서 사나운 아이가 염병을 퍼뜨리다〉에서 소년 귀신은 머리를 흐트러뜨린 사나운 모습으로 잔치 자리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이 말을 걸거나 때려도 일절 반응하지 않으며, 〈선비의 집에서 늙은 할미가 요괴로 변하다〉에서도 할미는 일단 요괴가 된 이후,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끝내 모든 사람을 죽인다.

제사를 지내는데 풍악을 더욱 성대하게 벌여 놓고 술과 음식을 끊임없이 차려 내왔다. 그러자 귀신 기생은 온몸을 병풍 안으로 들여놓고 다시는 남청을 돌아 보지 않았다.⁵⁰⁾

감사는 기녀 귀신이 곳 구경에 정신이 팔려 감사를 잠시 떠난 틈에 부적을 붙인다. 기녀 귀신은 부적 때문에 감사 곁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그를 원망하며 힘없이 사라진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만, 괴상한 외양이나 압도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품은 귀신이 굿판을 보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 굿판과 감사 곁을 오가며 우왕좌왕하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여자가 곳 구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름없다”라는, 살아 있는 여성의 호기심을 조롱하는 남성의 시선을 귀신에게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에는 전반적으로 공포나 긴장보다는 오락성과 희극성이 두드러진다. 유사하게, 『학산한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요물은 외다리로 뛰어다니며 길을 물어보는, 기괴하지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모습을 가졌고, 퇴치자인 이유(李濡)가 나타나자 급하게 도망치는 장면이 서사의 중심이다. 요물은 환자의 베갯머리에 앉아 있다가 이유를 보자 문밖으로 달아나고, 지붕 위로 도망치다가 마침내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이러한 모습은 공포스러운 축귀(逐鬼) 의식이라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도피 장면에 가깝다. 이러한 사례는 질병 귀신이 공포나 혐오의 대상이기보다는, 해학과 조롱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귀신이 협상과 유머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나타나는 병증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달리, 개별 환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던 조건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50) 유몽인(2006), 앞의 책, 274쪽.

4. 맺음말

조선시대 의학 기술의 한계 속에서 많은 질병은 그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이러한 지식의 공백은 질병을 인간 외부에서 침입하는 존재로 상상하게 만들었고, 귀신은 그 공백을 설명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했다. 생사회복을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고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한 언급을 경계한 유학적 규범 속에서도 전승된 질병 귀신담은, 당대 지식인의 질병 인식과 상상력을 복원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괴물이나 귀신이 그 사회가 소화하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존재의 실체화라는⁵¹⁾ 논리에 비추어 보자면, 질병의 원인으로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질병에 대한 당대의 무지와 공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귀신이 질병의 원인으로 설정되는 범위는 질병 전반이라기보다는 발병 원인이 모호하고 치료 성과가 불확실한 특정 질병에 선택적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비-전염병 귀신담에서 귀신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서술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귀신을 제압하는 인물은 귀신을 식별하는 능력과 육체적·정신적 강건함을 갖춘 존재로 설정되며,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조건은 점차 완화되었다. 또한 귀신과의 협상, 속임수, 조롱과 같은 장면은 질병을 둘러싼 긴장을 일정 부분 해소하며, 귀신을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서사적으로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귀신담의 양상은 해당 질병이 공동체 전체를 즉각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속성은 환자와 주변인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변인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며, 이는 서사 속에서 인간의 능력·관계망·

51) 강상순, 『귀신과 괴물: 조선 유교사회의 그림자』, 소명출판, 2017, 307쪽; 김신정 (2020), 앞의 논문, 200~201쪽.

위계 질서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비-전염성은 의학적 속성임과 동시에, 조선시대 질병 귀신담의 서사 구조와 상상력의 방향을 조직하는 중요한 변수로 기능했다.

따라서 비-전염병 서사는 전염병 서사에 포괄되어 이해되기보다는, 고유한 서사적 작동 원리를 지닌 유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비-전염병 귀신담에 관한 이번 연구는 질병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서사가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질병과 귀신을 둘러싼 상상력이 단일한 공포의 체계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주되는 서사적 전략임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박양한, 김동욱 옮김, 『매옹한록(梅翁閑錄)』 하, 보고서, 2017, 1~343쪽.

성 현, 김남이·전지원 외 역, 『용재총화(慵齋叢話)』, 휴머니스트, 2015, 1~744쪽.

신돈복, 김동욱 옮김, 『국역 학산한언(鶴山閑言)』 2, 보고서, 2007, 1~203쪽.

유몽인, 신익철·이형대·조용희 역, 『어우야담(於于野譚)』, 돌베개, 2006, 1~860쪽.

이 익, 『성호사설(星湖僊說)』,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68A, 접속일자: 2025.11.01.

일 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제6신주(神呪第六), 「밀본취사(密本摧邪)」, 한국고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y_005r_0010_0010_0010, 접속일자: 2025.11.01.

_____,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제6신주(神呪第六), 「혜통항룡(惠通降龍)」, 한국고대사료 DB,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y_005r_0010_0020_0050, 접속일자: 2025.11.01.

임 매, 김동욱 옮김, 『잡기고담(雜記古談)』, 보고서, 2014, 1~306쪽.

임 방, 정환국 옮김, 『천예록(天倪錄)』, 보고서, 2023, 1~308쪽.

허 준,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동의보감』 4, 법인문화사, 1237~1702쪽.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8, 「계압만록(鷄鴨漫錄)」, 경인문화사, 1987, 1~517쪽.

『대동야승(大東野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22A_0010_000_0020, 접속일자: 2025.11.0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21년 8월 13일, https://sillok.history.go.kr/id/kwa_12108013_001, 접속일자: 2025.12.02.

이강욱 옮김, 『청구야담(靑邱野談)』 하, 문학동네, 2019, 1~1004쪽.

강상순, 『귀신과 괴물: 조선 유교사회의 그림자』, 소명출판, 2017, 1~340쪽.

_____, 「조선시대 역병인식과 신이적 상상세계」, 『일본학연구』 4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69~97쪽.

_____, 「조선시대 필기·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137~168쪽.

김신정, 「조선조 야담을 통해 본 질병의 형상화와 질병에 대한 두 시선」, 『구비문학연구』 58, 한국구비문학회, 2020, 183~210쪽.

- 김유미, 「비(非)전염성 질병의 문학적 형상화: 전근대 가문소설에 나타난 중기와 화병을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23(4), 문학과 환경학회, 2024, 5~32쪽.
-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5,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1~616쪽.
-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1~626쪽.
- 이인경,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の 시선」, 『어문론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43~180쪽.
- 이주영, 「19세기 疫病체험의 문학적 형상」,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39~68쪽.
- 정경민, 「귀신으로서의 아이가 지닌 표상성 연구-『천예록』 소재 두역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39~63쪽.
- 정장순, 「조선후기 야담에 형상화된 ‘두신(痘神)’의 성격과 의미」, 『어문논집』 76, 민족어문학회, 2016, 5~39쪽.
- 정현진, 「병의장으로 진단된 입원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40쪽.

ABSTRACT

Imagining Non-Infectious Diseases in Chosŏn Ghost Tales

Kim, You-me

This study examines ghost tales involving non-infectious diseases in Chosŏn-period *p'ilgi* and *yadam* literature, focusing on narratives in which ghosts are presented as the direct cause of illness. It explores how non-infectious diseases were imagined and narrativized within the medic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time. Such ghost tales most frequently appear in cases of mental disturbance or illnesses whose causes were difficult to determine. This suggests that ghosts were not invoked as a uniform explanatory device for all diseases, but were selectively mobilized for conditions that exceeded the diagnostic limits of contemporary medicine.

In these narratives, human resolve, medical knowledge, and personal capability are strongly emphasized, and stories of successful cure are relatively common. This tendenc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non-infectious diseases, which allowed direct human intervention and therapeutic attempts due to the absence of contagion risk. Ghosts, though identified as the cause of illness, are rarely depicted as objects of absolute reverence or terror; rather, they are often portrayed as beings that can be subdued by force or controlled through human-led negotiation. The figures who overcome disease-causing ghosts are typically endowed with the ability to perceive supernatural beings and with exceptional physical or mental strength, although such requirements gradually become less strict in later periods. Moreover, these tales frequently depict solidarity between patients and surrounding individuals, human-initiated negotiation, and even humorous or satirical attitudes toward ghosts. The active social interaction surrounding the patient and the varied hierarchies that structure human-ghost relations can be

understood as narrative consequences of a medical condition that does not threaten the entire community with contagion.

In this respect, non-infectiousness functioned not merely as a medical attribute but as a significant structural condition shaping the narrative logic and cultural imagination of disease-related ghost tales in Chosŏn Korea.

Key Words non-infectious disease, ghosts, epidemic disease, pre-modern Korean literature

논문투고일: 2025.12.14. 심사완료일: 2026.02.08. 게재확정일: 2026.02.09.
--